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李 翊 燮
(서울大 교수·국어학)

1

우리 나라에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싹트고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제정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訓民正音'(解例本)에 이미 '邊野의 말'(邊野之語)이라고 하여 사투리를 따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표준어의 개념이 어렴풋이나마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싹터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合字解에 보면 ㅏ, ㅓ, ㅗ, ㅜ와 ㅣ가 결합한 ㅑ, ㅕ, ㅛ, ㅠ는 制字하면서 그 ㅣ와 ㅡ, 또는 ㅣ와 ·가 결합한 글자는, 비록 28字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면서도, '國語'에는 소용이 없으나 아이들 말이나 邊野의 말에는 혹 있으므로 'ㅡㅣ ㅣㅣ'처럼 만들어 쓸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근거가 아니더라도 각종 諺解 사업을 벌이는 단계에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은 어떤 형식으로든 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강력한 中央集權 체제하에 있었던 朝鮮朝에 있어서는 그 초기부터 서울말이 자연스럽게 표준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朝가 끝날 때까지 한글로 된 각종 서적을 내면서 무엇을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표준어가 明文으로 규정되기에 이른 것은 아마 1912년 4월에 공포된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에서가 아닌가 한다. 즉 여기에서는 맞춤법의 한 기준으로 "京城語를 표준어로 함"이란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慣用으로 인정되어 오던 현실을 맞춤법의 원칙을 만들면서 필요상 明文化한 것이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해석

하기에 따라서는 국어 표준어의 새 시대가 이 때부터 열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다만 이 시기에 표준어 査定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고 따라서 이 시기를 국어 표준어의 새 章이 열린 시기라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주지하다시피 국어 표준어가 단어 하나씩 축조 심의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심의된 것은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업과 병행하여 착수한 표준어 査定 작업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 결과가 1936년 10월에 발간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다. 이 때 표준어 選定의 대원칙은 말할 것도 없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였다. 앞의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에서보다 계층방언을 염두에 두고 중류사회의 말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을 세우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준어 査定 작업을 펴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 査定은 출판의 물량이 많아지는 단계에 오면 거의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한정된 기관에서 한정된 간행물만 낼 때에는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 모르는 일이 생겨도 그때 그때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중앙 기구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다량의 출판물이 쏟아져 나올 단계에 이르면 표준어集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사전을 만들어 길잡이를 미리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조선어학회에서의 표준어 査定 작업은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며 매우 時宜를 얻은 일이었다 할 것이다.

앞에서도 示唆했듯이 표준어 査定 작업은 궁극적으로 표준어 사전을 만드는 일로 귀결되는 작업이다. 무엇이 표준어이며 무엇이 비표준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국어 사전을 찾게 되며, 표준어 査定 작업은 이러한 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인 것이다. 이 점은 한글학회가 간행한 '큰 사전'의 '편찬의 경위'에서도 읽을 수 있다.

> 그 때의 어려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첫째 이러한 대 사업을 경륜하면서 재정적 기초가 빈약하였고, 둘째로는 확정한 표준말과 통일된 맞춤법이 없

었다. 그래서 (중략) 표준말과 맞춤법에 관한 일은 조선어학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이 편찬 경위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표준어 査定의 성격이 더욱 잘 드러난다. 이 방면의 조직은 애초 1929년에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앞의 引用에서 보듯이 사전 편찬을 위해 필수적으로 先行하여야 할 작업이 맞춤법의 통일과 표준어의 査定이었다. 그리하여 1933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공포하고 이어 1936에 公刊한 것이 바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었던 것이다. 어떻든 이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국어 사전 편찬의 先行 작업이었음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표준어 査定이 국어 사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대표되는 이 당시의 표준어 査定 작업은 아직 그리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니었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수록된 표준어는 6천 개였던 점이 우선 그러하다. 한 나라 언어에 쓰이는 단어를 전부 수록하는 사전이 6천여 개만으로 이루어질 리는 없겠기 때문이다. 이 표준어集은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끈 임시 처방이었다고 할 만하다.

또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비표준어로 처리된 것이 오늘날 표준어로 쓰이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도 당시의 작업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漢字語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 일례로 '재작년, 매년, 염료, 용도, 호랑이, 신랑' 등을 모두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그러께, 해마다, 물감, 씀씀이, 범, 새서방'들만 표준어로 처리하여 놓았다. 이들 비표준어는 당시 이후 한번도 비표준어 자리로 떨어졌던 일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그것은 당시의 표준어 査定이 꽤 人爲的이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일 터인데 결론적으로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당시의 표준어 査定 작업은 초기적인 단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 기초 작업을 발판으로 하여 이어지기로 계획되었던 '조선말 큰 사전'의 편찬 작업이 순조롭지 않게 되어 국어 표준어의 整理는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였다. 1936년부터 시작된 사전 편찬의 일의 한 결실로 그 첫째권의 조판을 시작한 1941년 日帝의 탄압으로 사전 편찬의

일이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큰 사전' 첫째권이 간행된 것은 해방 후인 1947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권인 제6권은 6·25등으로 하여 첫째권이 나온 해부터 10년이나 지난 1957년에야 겨우 출간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표준어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1957년에 와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큰 사전' 이전에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에 간행한 '朝鮮語辭典'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전은 표준어 査定이라는 先行 작업을 엄격히 거쳤다는 기록이 없고 그 실제 내용을 보아도 이것이 그대로 표준어集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 예로 '로인'(老人), '선명'(選定)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표준어 査定 작업이 한 권의 사전 분량으로 이루어진 것은 1957년에 비로소 된 것이라고 봄이 온당할 것이다.

4

'큰 사전'이 출간된 후 아쉬웠던 것은 이 사전이 표준어集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이다. '큰 사전'의 편찬 사업이 擧國的인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비록 그것이 국가 기관이 장악하여 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전'이 누리는 권위는 그에 못 미쳤다. 거기다가 국어 사전이 표준어集이라는 인식이 都是 부족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국어 표준어는 그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큰 사전' 간행 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국어 사전이 출간되었는데 가령 어떤 사전이 '큰 사전'과 다른 형태를 표준어로 등재하였을 때 그것을 규제할 권위를 '큰 사전'은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극히 일부 단어에 국한되는 현상이긴 하였으나 심하게 말하면 사전마다 서로 다른 형태를 표준어로 내세우는 현상이 초래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큰 사전'의 권위와 관련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원인은 학계나 당국의, 표준어에 대한 무감각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큰 사전'이 더없이 완전무결한 完成品이 아닌 이상 (세계 어떤 사전도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표준어 査定 작업은 계속되어야 했고 그러한 작업을 위한 常設機構가 만들어져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목소리는 좀체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문교부에서 학교 교과서 편집상 표준어 査定 작업을 얼마간씩 계속해 오긴 하

였지만 그것이 종합되어 정리되거나, 또는 그것이 권위를 가져 새 사전 편찬에 통일성 있게 반영되는 체계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큰 사전'이 만들어진 후 국어는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데도 새 표준어를 査定하는 일은 잠자고 있었다. '아파트'라는 새 단어가 생겨서 쓰기 시작하다가 일부에서는 이를 '어파트'로 고쳐 부름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었을 때 그 중 어느것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지를 국가가 즉시 즉시 결정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다룰 기구도 마땅하지 않았거니와 그저 방관하는 상태였고, 각종 교과서에서는 '버들피리'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쓰임에도 국어 사전에는 여전히 '호드기'만이 표준어임을 고집하고 있었고, 또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5

표준어 査定 작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된 것은 1970년의 일이었고 그 첫 결과가 발표된 것은 1979년 3월의 일이었다. 이 작업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 아마도 더 큰 비중은 이 후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표준어 정리 작업이 이 때부터 어떻든 새 국면을 맞이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만에 본격화한 표준어 정리 사업이 그리 체계적으로, 또 규모있게 진척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1979년 3월에 문교부에서 간행한 '한글 맞춤법 개정 시안·표준말 재사정 시안·외래어 표기법 개정 시안'은 이어 그해 9월에 수정판을 냈다가 그 업무를 학술원으로 이관하여 이 사업은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학술원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부터는 국어연구소에서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한 가지 사업이 이렇듯 이리저리로 옮겨지면서 그때마다 연구원들도 바뀌어 나간 것은 이 사업이 애초부터 확고한 목표도 세우지 못한 채 출발하였고 그 계획도 치밀하지 못하였던 데 말미암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査定된 표준어는 그 동안의 언어 변천을 반영한 것이 많다.

미류나무→미루나무
강남콩→강낭콩
남비→냄비
나발꽃→나팔꽃

등 이미 일반에 통용되고 있는 형태를 새 표준어로 정한 것이 많은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의 표준어 개정은 이미 뿌리를 내린 표준어를 追認해 주는 성격이었다고 규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점은 死語化한 것을 정리한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머귀나무'나 '오얏' 등은 이미 일상어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들이어서 '오동나무, 자두' 쪽만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역시 현실을 追認하는 성격이었다고 할 만하다. '말약(→가루약), 맹눈(→까막눈), 화곽(→성냥), 백죽(→흰죽)' 등의 死語를 버리고 괄호 속의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배암(→뱀), 새암(→샘), 기음(→김)' 등 이른바 본말을 버리고 괄호 속의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도 거의 같은 성격의 처리였다고 하겠다.

또 방언이던 '멍게' 등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멍게'는 차츰 세력을 얻어 오히려 표준어인 '우렁쉥이'보다 훨씬 더 일반화되었다. 그것을 이번에 현실화한 것이다. '코주부'가 표준어로 승격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인지 학술원案에서, 그리고 국어연구소案에서도 한참 동안은 표준어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던 '버들피리'가 간데온데 없이 사라진 것은 기이하다. 계속 '호드기'만을 표준어로 하고 '버들피리'는 私生兒로 만들겠다는 처사인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깨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곧 바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人爲的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과감히 수술한 것도 한 특징이다. '돌'과 '돐'의 구분을 없애고 '돌' 하나로 통합하고, '둘째'와 '두째'의 구분을 없애고 '둘째' 하나로 통합한 것이 그 일례다. 표준어를 배우면서 억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로써 국어에 대한 애착심에 손상을 입힌다면 표준어를 정리하는 정신에 어긋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종래에는 표준어나 맞춤법에서 그런 억지가 없지 않았다. '좋읍니다'의 '-읍니다'도 그 하나였는데 이것도 이번에 '-습니다' 하나로 통일시켰다. 마찬가지로 '암놈, 수놈'의 '수놈'도 비현실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억지스러움을 느끼게 하던 것이어서 국어연구소案 때까지 '숫놈'으로 고쳤었다. 그런데 문교부의 최종안에서 다시 '수놈'으로 환원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숫놈'은 어원적으로 '숳놈'일 것이다. '수탉, 수캐'도 어원적으로 '숳닭, 숳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받침에 'ㅎ'을 살려 쓰는 것이 번잡스럽게 느껴져 '수탉, 수캐'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받침 'ㅎ'은 발음상으로는 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숳놈'의 경우에도 발음은 '숟놈'이어서 받침

'ㅎ'이 분명히 살아 있고 따라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 그런데 'ㅎ'은 '수캐'에서도 쓰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한 代案으로 등장한 것이 '숫놈'이었다. 그것을 '수놈'으로 정한 것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형태를 억지로 표준어로 삼은 또한번의 愚임이 분명하다.

이 이외에도 문교부의 최종안에는 국어연구소案을 改惡하여 표준어가 억지라는 느낌을 주도록 만든 것이 있다. 제9항 붙임 2가 그것으로 '미장이'처럼 기술자는 '-장이'로 하고 그 이외에는 '멋쟁이'처럼 '-쟁이'로 하도록 한 것이다. '점장이'는 기술자인가 아닌가의 해석에 따라 '점장이'인지 '점쟁이'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니 공연히 새 불씨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의 개정은 그 동안 현실에서 멀던 형태를 제거하고 새로 자리를 굳힌 형태들을 표준어에 入籍시켜 줌으로써 그 동안 현실과 法 사이에서 곤란을 겪던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또 사전마다 달리 처리하여 혼란스럽던 것을 정리해 준 것도 큰 공헌이라 할 만하다.

다만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표준어 정리는 국어 사전으로 귀결되는데 그 점에서 아직 표준어 사전을 만들지 못한 단계인 만큼 이번의 표준어 개정 사업은 새 표준어 정리 사업의 기초 작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 사업으로 국가가 그 권위를 보증할 표준어 사전의 편찬 사업을 국어연구소와 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국어 사전 하나를 만드는 일은 여러 면에서 시급한 일이지만 그것이 곧 표준어 정리 작업의 마무리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서둘러 완결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개정에서 漢字語와 근래의 外來語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말은 살아 움직이는데 표준어 정리 사업은 잠을 자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